



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 금융위원회 | 보 도 참 고 자 료 | | | |  |
| | 보도 | 배포 시 | 배포 | 2020.7.29.(수)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책 임 자 |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 | 담 당 자 | 김 태 훈 사무관 (02-2100-2861) |
| | 산업은행 기획조정부장 민 경 필(02-787-6101) | | 안 성 진 팀장 (02-787-6141) |
| | 기업은행 전략기획부장 김 태 형(02-729-7471) | | 박 진 현 팀장 (02-729-6321) |
| |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강 정 수(02-3779-6261) | | 조 정 화 팀장 (02-3779-6265) |
| |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장 오 재 택(053-430-4101) | | 강 종 신 수석부부장(053-430-4103) |

제 목 :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, 「한국형 뉴딜」에 적극 참여하여 다가를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1. 간담회 개요

- ☐ '20.7.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,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.

※ 간담회 개요

- (일시) '20.7.29.(수) 07:30
- (참석) 금융위원장, 사무처장
산업은행 회장(이동걸), 기업은행장(윤종원), 수출입은행장(방문규),
신용보증기금 이사장(윤대희)

2. 주요 논의사항

① 「한국판 뉴딜」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

-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경제·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「한국판 뉴딜」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고,
-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, 디지털·그린 뉴딜 부문 금융지원, 민간투자 유도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「한국판 뉴딜」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내부 TF*를 소개하며, 이를 통해 뉴딜부문 혁신기업 지원, 민간 유동성을 뉴딜부문으로 유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부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

* 「한국판 뉴딜 추진 TF(산은)」, 7.16일 구성

- ②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「한국판 뉴딜」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문 지원강화(그린뉴딜), 비대면·디지털 금융 활성화(디지털뉴딜) 등과 관련한 과제를 검토중이며, 특히, 뉴딜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
- ③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「한국판 뉴딜」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시장 진출시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,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- ④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「한국판 뉴딜」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(7.15일)하고 워크숍(7.24일)을 개최하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, 보증 지원 등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

→ 금융위원장도 전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「한국판 뉴딜」 대책은 우리 경제가 “선도형 경제”로 안정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강조하였습니다.

-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중자금이 혁신적·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,
-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「한국판 뉴딜」 추진에 적극 나서주는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.

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「175조원+a」 대책 차질없이 이행

①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며,

- 코로나19의 파급효과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·보증 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사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.

→ 금융위원장은, 정책금융기관이 「175조원+a」 대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, 금융시장 충격이 비교적 빠르게 완화되었고,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i)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중이고, ii) 3차 추경(4.7조원 규모)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여력을 확보한 만큼,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② 금융위원장은 「기간산업 안정기금」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, 산업은행이 「기간산업 안정기금」 실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,

- 아울러, 취약업종 기업 중 기존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 간 공조를 통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→ 정책금융기관장들은,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, 취약업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,

-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, 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기관 간 리스크를 분담하는 등 적극적 공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.

3 정책금융기관 인력운영 관련

○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, 「한국판 뉴딜」 지원 등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

- 직원 고령화 및 임금피크 인력 확대* 등으로 인력 운영상의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.

* 예 : 산은은 '18→'23년간 임피직원 비중이 약 7%→약 14%까지 급증

→ 금융위원장은,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고충과 신규채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,

- 인력구조 개선 등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.

4 정부와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소통 중요

○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은,

-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,

-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